



작가

AI도움받아 006 씬

작가프로필



바닷바람이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던 아름다운 고향, 부안에서 자랐습니다.

탁 트인 파란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과 느긋하게 걸으며 길가의 작은 풍경들을 만나는 순간을 좋아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견하는 신비로운 자연의 이야기들은 저에게 소중한 영감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깊고 잔잔한 파랑색처럼,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스며드는 따뜻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
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
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
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
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
에 따듯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
볼까요?



1장: 미래 도시의 외로운 공주와 숲속 온 달

AI 로봇과 드론이 날아다니는 미래 도시,
아이들은 온순하고 키가 큰 온달이에게
"AI도 모르는 바보!"라며 놀려댑니다. 하
지만 온달이는 "아따 그려! 오늘은 참말
로 기분 좋은 날이여!" 하고 웃어넘기지
요. 한편, 똑똑하지만 차가운 로봇에 지친
평강 공주는 진짜 친구를 찾아 드론을 들
고 숲으로 향합니다.



2장: 숲속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숲속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자 평강이는 길을 잃고 맙니다. 이때 온달이가 나타나 평강이를 구해 주고, 텃밭에서 캔 달콤한 무를 나누어 줍니다. 온달: "이 무시 한번 노나 먹어봐 마. 겁나게 맛나다잉!" 평강: "와! 이 열매랑 무시, 진짜 달콤하고 맛나다!"



3장: 서로의 장점으로 맺어진 단짝 친구

온달이의 따뜻함에 마음을 연 평강이는 함께 탐험하자고 제안합니다. 로봇과 기술을 잘 다루는 평강이와, 동물들의 말을 통역하고 숲을 잘 아는 온달이는 서로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는 최고의 단짝이 됩니다.

온달: "암시랑도 안혀!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드라고!"



4장: 동굴 속 위기와 온달이의 용기

어느 날, 평강이가 아끼는 AI 로봇이
깊고 캄캄한 동굴 속으로 떨어집니다.
첨단 장비가 모두 먹통이 되자 평강이
는 울음을 터뜨리지만, 피곤해서 혀가
빠질 지경(새배지게 진)이어도 온달이
는 용기를 냅니다.

온달: "저 밑에 로봇이 있당가? 금게
그러, 내가 숲속 친구들이랑 꼭 찾아줄
텅게 울지 마라잉!"



5장: 최고의 탐험가들과 따뜻한 저녁

온달이의 신호에 박쥐와 다람쥐들이 힘을 합쳐 로봇을 무사히 구해냅니다. 평강이는 온달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탐험가"라며 마음을 전합니다. 모험을 마친 두 친구는 숲속 정지(부엌)에서 신건지와 짬지를 나눠 먹으며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